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2~7/8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생전예수재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종출판사
2	원각경	김현준	효림
3	수구즉득다라니	석법성 역주	운주사
4	시드니의 도반들	기후	맑은소리맑은나라
5	금강경선물(컬러링북)	박혜상	불교신문사
6	대원지장점찰선악업보경	편집부	토방
7	만다라 명상 컬러링 북	임시연	담앤북스
8	마음공부에 관하여	초감트룽파	불광출판사
9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본지풍광설화)	성철스님	장경각
10	선명상 마음의 평화	진우스님 외	조계종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치유하는 유식읽기(심리학의 눈으로 새롭게 풀이한 유식30송)	서광스님 강의	공간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3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2)	비구 범일	여시아독
4	설우스님이 들려주는 행복한 금강경이야기	설우 스님 지음	사유수
5	화: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6	위없는 지혜:금강경반야심경 해설	에드워드 콘즈	사유수
7	불멸(1) 영원한 지금의 메시지 *개정판	이각 지음	지혜의눈
8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9	상윳따니까야(1) 주제별로 모은경*계송을 포함한 가르침	각묵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10	숫타니파타-붓다의말씀	퇴현 전재성 역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원학 스님의 풀이로 만나는 '다부'



내 마음속 차 향기여! 해와 달을 품고 있네

한재 이목 지음

원학 스님 번역 · 해설

불광출판사 / 2만2000원

우리나라 최초의 차 노래

수행자·다인 입장서 풀이

"진정한 끽다거 정신 이어지길"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조선 전기의 성리학자인 한재 이목(1471~1498)이 지은 〈다부(茶賦)〉는 우리나라 최초의 차 노래로, 초의 선사의 〈동다송〉(1837)보다도 340여 년이나 앞선 다서다. 그는 젊은 시절 중국에서 차를 접한 경험을 바탕으로 차의 참다운 정신과 심오한 경지를 시로 남겼다.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스물여덟의 나이에 요절했지만, 그가 쓴 〈다부〉는 차가 기호품에 머물지 않고 인간을 깊은 내면세계로 인도한다는 가르침을 오늘에 전한다.

한재는 〈다부〉에서 글을 쓴 동기를 밝힌 후 차의 5공(功), 6덕(德), 7효능(效能)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자신의 차 정신을 피력했다. 하지만 시 형식이라 언급된 지명, 인용구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차를 공부하는 이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 이러한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원학 스님〈사진〉이 〈다부〉를 번역하고 해설한 책 〈내 마음속 차 향기여! 해와 달을 품고 있네〉를 펴냈다. 〈동다송〉을 풀이한 〈향기로운 동다여 깨달음의 환희라네〉 이후 두 번째 다서 번역이다.

스님은 2001년, 다회(茶會)에서 〈다부〉 강의를 맡게 되면서 처음 이 책을 접했다. 원문을 교재로 1년 6개월 동안 강독하며 점차 〈다부〉에 담긴 사유의 깊이와 맑은 정신세계에 사로잡혔고, 직접 새롭게 번역하기에 이르렀다. 스님은 원문을 한자 그대로 풀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행자이자 다인(茶人)으로서의 해석과 감상을 덧붙여 이해를 높였다. 특히 기존 번역서들이 제대로 번역하지 못한 '오해(五害)'와 '팔진(八眞)'을 불교의 가르침에 근간해 풀어냈다.

[번역] 인간에게 반드시 물리쳐야 할 다섯 가지 욕심을 깨끗이 씻어내고 여덟 가지 바른 진리를 넓혀 가야 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다향(茶香)에 젖어드는 것이다.

[해설] **"한재는 불교에서 수행을 통해서 다섯 가지 해로운 욕망을 극복하듯 다향의 차 수행을 통해 여덟 가지 실천적 진리를 생활 속에서 구현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오해(五害)는 재색식명수(財色食名壽)의 다섯 가지 해로운 욕망이며, 팔진(八眞)은 팔정도(八正道)를 말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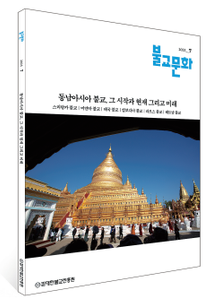
원학 스님은 7월 2일 서울 인사동의 찻집에서 열린 출판간담회에서 "한재는 '일생 동안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벗이 있다면 그것은 다우(茶友)'라고 했다. 불가에서도 고승들이 다성(茶性)을 가까이하고 다향(茶香)을 못 잊어 한 것은 수행에도 반드시 향기로운 대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으로, 그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끽다거(喫茶去)'"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스님들도 차 대신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보편적인데, 〈다부〉를 통해 끽다거의 진정한 정신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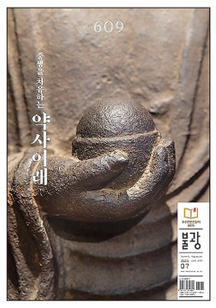
불교잡지 7월호 미리보기

'불교문화'…동남아 불교 조명

'불광'…중생 치유하는 약사여래

'불교'…윤달, 불교 문화와 의례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발행하는 **월간 '불교문화'** 7월호(통권 제299호)는 '동남아시아 불교, 그 시작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동남아 불교의 역사적 전개와 발전 과정을 조명하고, 식민지·내전·사회주의 체제를 거치며 불교가 민족성과 공동체성을 어떻게 보존해 왔는지 살핀다.

국내 스리랑카 사찰 마하위하라 주지 담마끼띠 스님은 열여덟 차례에 걸친 왕국의 멸망 속에서도 굳건하게 지켜온 스리랑카 불교의 역사를 소개하고, 김한상 능인대학원대 불교학과 조교수는 미얀마 불교의 역사와 19세기 이후 불교 부흥 운동과 명상법 발전을 살핀다.

황순일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는 드바라바티 문화에서 시작된 태국 불교가 하리푼차이 전통을 계승하며 발전해 온 과정을 소개하고, 송위지 성원불교대학 학장은 '캄보디아 불교'를 주제로 기원전 3세기 아소카왕의 파견으로 전래된 불교가 힌두교와의 공존을 거쳐 상좌부 불교로 정착된 역사적 흐름을 조명했다.

정기선 미얀마 불교문화연구소장은 '라오스 불교'만의 독특한 특성을, 이병욱 보조사상연구원 원장은 '베트남 불교'를 통해 베트남 불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각도로 살폈다.

불광미디어(발행인 지홍 스님)가 펴내는 **월간 '불광'** 7월호(통권 609호)는 '중생을 치유하는 약사여래'를 주제로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신앙되어 온 약사부처님을 다양한 도판과 함께 다각적으로 소개한다.

오늘날 약사신앙은 약사여래 명호를 반복해 부르는 칭명염불(稱名念佛)의 형태지만, 본래 〈약사경〉에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의례들이 수록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속명번등법(續命幡燈法)과 오색루법(五色縷法)이다. 이번 호에서는 오색루법을 소개하는 한편, 중국 돈황 막고굴 벽화에 나타난 속명번등법의 시각적 자료를 살펴보며 약사신앙이 어떻게 활용되고 변모해 왔는지 고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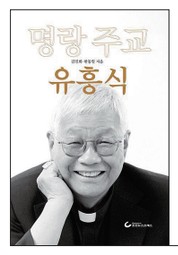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발간하는 **월간 '불교'**는 7월호(통권 764호)를 윤달 특집으로 꾸렸다. 특별기고 '윤달과 윤달의 례'(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장)에서는 달력에서 벗어난 달, 윤달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삶과 죽음, 기억과 기도, 의례와 공덕의 의미를 다시 묻는다. 특히 윤달에 행해지는 불교의례들의 유래와 현대적 해석을 통해 조상에 대한 공경을 수행과 연결하는 길을 주제로 전통과 믿음이 어떻게 오늘의 삶과 만나는지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영산작법 삼귀의례를 중심으로 본 불교의례의 본질'(이성운), '유두 보살계의 전통과 현대적 계승'(구미래) 등 다양한 시선들을 만날 수 있다.

신중일 기자

이웃 종교 책 읽기

명랑함에 담긴 친절과 기도



명랑 주교 유흥식

김민희 · 한동일 지음

조선뉴스프레스

1만4000원

1951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난 소년이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으로 임명되기까지.

〈명랑 주교 유흥식〉은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이 살아온 길과 신앙 그리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담은 대담집이다.

김민희 '톱클래스' 편집장과 한동일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바티칸대법원 로타 로마나 변호사)가 함께 엮은 이 책은 '톱클래스' 2023년 9월호에 게재된 인터뷰와 당시 서면 및 대면으로 진행한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한다

대전교구장 시절부터 교황청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까지, 그가 겪은 교회 안팎의 일화를 인터뷰 형식으로 풀어 마치 유 추기경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듣는 듯하다.

유흥식 추기경이 인터뷰 내내 강조한 것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그는 가난한 자와 약자의 편에 섰고, 만나는 누구든 웃으며 환대했으며,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라면 현실 정치와 사회 이슈에도 목소리를 냈다.

책 제목에도 쓰인 '명랑'은 성격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관통하는 신앙 태도를 상징한다. 유 추기경은 힘든 순간에도 '하느님은 늘 함께하신다'는 믿음으로 버텼고, 그러한 믿음은 웃음을 잃지 않는 힘이 되었다고 말한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 곁을 지키려는 마음은 불교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 '깨달음', '자비', '참회'는 종교의 본질이 '함께함'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속도와 경쟁에 사람 사이의 간극이 더욱 커진 이 시대, 유흥식 주교는 묻는다. "당신은 오늘 누구에게 웃어주었습니까?"

책 수익금 전액은 유흥식 추기경의 요청에 따라 자립 청년 주거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여수령 기자



서양 철학자와 동양 승려의 만남

피터 싱어, 불교와 만나다

서로 다른 전통과 언어, 문화적 배경을 가진 두 사상가가 세계가 당면한 다양한 사회문제와 윤리문제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비전을 공유한다.

피터 싱어 · 스자오후이 지음, 정환희 옮김/신국판/284쪽/값 20,000원

생전예수재 여법하게 지내기!

예수재의범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석문의범』, 『요집』, 『수생경』, 『시왕경』, 『영산대회작법절차』, 『오종범음집』 등 각종 의식문을 참고하여 정리한 생전예수재 의식 절차 및 의식문!

편집 해사/사륙배판/양장/276쪽/값 25,000원

간단하고 직접적인 불교명상 안내서

통찰의 체험

현대 명상 지침서 가운데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최고의 책이다. 수십 년 전에 출간되었지만 명상을 배우는 사람에게 여전히 신선하고 살아 있는 안내서 역할을 한다.

조셉 골드스타인 지음, 이재석 옮김/신국판/248쪽/값 1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